

한국판 겸손 반응 척도(K-MRS) 타당화 연구

김 유 나

안 정 광[†]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겸손(modesty)과 겸허(humility)는 대인관계적, 개인내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임에도 많은 연구에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겸손을 측정하는 척도 역시 두 개념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은 채 개발되었다. 본 연구는 겸손과 겸허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측정하려는 목적으로 Whetstone, Okun과 Gialdini(1992)가 개발한 겸손 반응 척도(Modest Responding Scale, MRS)를 한국판으로 타당화하였다. 전체 661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수집된 320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교차 타당도 검증을 위해 무작위 추출된 자료의 절반은 탐색적 요인분석, 나머지 절반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한 문항을 제외한 총 19문항이 3요인 구조(대인관계적 겸손성향, 사회적 바람직성, 겸허한 태도)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요인 구조가 양호한 적합도와 신뢰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한국판 MRS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인관계적 겸손성향과 사회적 바람직성 요인에서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수렴 및 변별 타당도 분석 결과, 한국판 MRS는 HEXACO 겸손성 소척도와 작은 크기의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HEXACO 정직성 점수와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판 MRS는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와 큰 크기의 상관을 보여 준거 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겸손과 겸허를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는 한국판 MRS를 타당화하였으며, 겸손과 겸허의 관계 및 개념 차이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 겸손, 겸허, 대인관계적 겸손성향, 사회적 바람직성, 겸허한 태도, 타당화

†교신저자: 안정광,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충대로 1, E-mail: jkahn@cbnu.ac.kr



© 2023, Korea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겸손이란 자신의 성격 특성이나 신체적 외모, 사회 기술 및 능력을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과소평가하여 전달하는 자기표현 전략이며(Cialdini & De Nichol, 1989; Cialdini, Wosinska, Dabul, Whetstone-Dion & Heszen, 1998), 자신을 매우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고 중간 정도로 보이기 원하는 자기관점을 의미한다(Sedikides, Gregg & Hart, 2007). 겸손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향하는 긍정적인 초점을 감소시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옮김으로써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신보다는 타인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더 맞추려는 경향을 보인다(Xiaohua Chen, Bond, Chan, Tang & Buchtel, 2009). 이런 특성으로 인해 겸손한 사람은 자기비하적이거나 자아도취적인 사람과는 반대로 타인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며(Powers & Zuroff, 1988), 겸손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력적으로 느껴지게끔 만들어 준다(Schlenker & Leary, 1982).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상대적으로 겸손한 태도를 보인 참가자는 사회적으로 매력적인 것으로 간주되며(Powers & Zuroff, 1988), 겸손한 태도는 자신을 표현하는 상황과 사회적으로 비교를 당하는 상황에서 우호적인 평가를 끌어낸다(Schütz, 1997; Stires & Jones, 1969).

많은 연구들이 modesty나 humility를 겸손으로 번역한다(김은미, 김기범, 2004; 유태용, 이기범, 2004; 신나영, 임영진, 2019). 그러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 둘은 유사하지만 다른 구성개념일 수 있다. Gregg, Hart, Sedikides & Kumashiro(2008)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modesty를 '자신의 강점과 한계에 대해 정확한 관점을 갖는 개인내적(intrapersonal) 특징'과 '집단 속에서 자신에게 향한 관심과 질투를 줄이기 위한 행동인 대인관계적(interpersonal) 특징'의 두 가지 측면으로 정의하였다. Modesty의 개인내적인 특징은 사람들이 자신의 수행 능력 등을 적절하게 지각할 수 있게 도와 너무 우울하지도, 너무 고양되지도 않는 기분을 갖게 하고, 스스로에 대해 너무 부정적이거나 지나치게 긍정적

으로 바라보지 않게 한다(Sedikides, Gregg & Hart, 2007). Modesty의 대인관계적 특징은 자신의 능력 및 사회 기술에 대한 타인의 기대감을 낮추고 미래의 부정적 평가를 감소시키는데 사용된다(Sedikides, Gregg & Hart, 2007). 반면, humility는 자신의 성격 특성이나 외모, 기술 및 능력 등을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과소평가하는 자기표현 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modesty와 공통점이 있으나,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낮은 자기 평가와 관련된 개인 내적인 측면이 상대적으로 더 강조되는 것으로 보인다(Knight & Nadel, 1986; Tangney, 2002). 요약하면, modesty는 humility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인관계적 측면이 강조되어 있으며, humility는 modesty보다 자기 비판과 같이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측면이 좀 더 강조되어 있다. 따라서 "다양한 행위나 다른 사람과 관련하여 자신을 낮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말의 겸손을 modesty의 번역어로 사용하고, "잘난 체 하지 않고 스스로를 낮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겸허를 humility의 번역어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그러나 modesty와 humility는 많은 연구에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겸손을 측정하는 척도 역시 두 개념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은 채 개발되었다.

겸손을 측정하는 척도로 Whetstone, Okun & Cialdini(1992)이 개발한 겸손 반응 척도(Modest Responding Scale; MRS)가 있다. MRS는 에리조나 주립 대학교 사회심리 연구팀에서 자신의 긍정적인 특성과 성취를 대중 앞에서 과소 표현하는 경향을 측정하는 20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다(Cialdini et al., 1998). "사람들에게 나의 강점과 성공에 대해 말하는 것은 언제나 부끄러운 일이다."와 같은 개인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겸손에 대한 성향(the inclination toward modesty), "집단 내에서 자신에 대해 자랑하는 것은 어느 경우에도나 사회적으로 부적절하다."와 같은 사회적 바람직성과 관련된 겸손(perceived social desirability of modest responses), "나는 무언가 잘 해냈을 때, 그것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좋아한다."와

같은 타인에게 자신의 성취와 능력을 자랑하는 성향(propensity to brag)의 3요인으로 구성되며, 앞에서 말한 modesty의 개인내적, 대인관계적 특징이 강조된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RS가 측정하는 겸손(modesty)의 개념을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정확한 관점을 가지고 있으나 자신의 능력을 의도적으로 과소평가함으로써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에게 향하는 관심과 기대를 줄이기 위한 특성'으로 조작적 정의할 수 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겸손 척도로 한국판 관계적 겸손 척도(Korean-Relational Humility Scale; K-RHS)가 있다(신나영, 임영진, 2019). 이 척도는 '겸손'이라 번역되어 있지만 척도의 원제목에는 'humility'라고 언급되어 있으며, 수검자가 바라보는 배우자의 겸손함을 측정하는 척도로 전반적 겸손(예, 배우자는 겸손한 성격을 지녔다.), 과대성 없음(예, 배우자는 과도한 자신감을 보인다.), 정확한 자기이해(예, 배우자는 배우자 자신을 잘 안다.) 그리고 특권 의식 없음(예, 배우자는 자신을 지나치게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한다.)의 4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문항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배우자를 겸손한 사람이라고 여긴다.' 혹은 '배우자는 과도한 자신감을 보인다.'와 같이 수검자 본인에 대한 겸손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척도가 아니고 배우자에 대한 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척도라는 한계가 있어, 개인의 겸손 성향을 측정하는 척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겸손 성향을 측정하는 가장 유명한 척도로 HEXACO의 정직/겸손성 소척도(Lee & Ashton, 2004)가 있다. HEXACO는 정직/겸손성(Honest/Humility), 정서성(Emotionality), 외향성(eXtroversion), 우호성(Agreeable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의 약자로 기존 5요인 성격 구조에 정직/겸손성 요인이 추가된 것이다. HEXACO의 정직/겸손성 소척도는 진실성(sincerity), 도덕성(fairness), 청렴성(greed avoidance) 그리고 겸손성(modesty)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져 있으며 humility 하위요인으로 modesty가 있다는 특징이 있다. 진실성은 대인관계에서 꾸밈없고 거짓 없는 정도를 평가하며, 도덕성은 사기와 부패를 피하려는 경향을 측정한다. 청렴성은 높은 사회적 지위나 사치품, 많은 재산을 추구하지 않는 정도를 의미하며, 겸손성은 겸손하고 남에게 자랑하거나 잘난 체 하지 않는 경향성을 측정한다(유태용, 이기범, Ashton, 2004). HEXACO 척도는 겸손(modesty)을 측정하는 타당화된 유일한 국내 척도로, 심리측정적 속성이 양호하다고 알려져 있다(유태용, 이기범, Ashton,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HEXACO의 정직/겸손성 소척도를 사용하였다. 먼저 HEXACO의 겸손성(modesty) 소척도를 수렴 타당도를 확인하는데 사용하였으며, 진실성, 도덕성, 청렴성 소척도를 합하여 '정직성'을 측정하는 소척도로 구성하고 이를 유사하지만 다른 구성 개념인지를 확인하는 변별 타당도를 측정하는데 사용하였다.

겸손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fear of positive evaluation)과 개념적으로 관련이 있다.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타인에게 자신의 장점이나 수행 결과 등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타인이 자신에게 기대하고 있는 수준이 높아졌을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결국에는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한다(박서정, 이정애, 오강섭, 2010; Wallace & Alden, 1995, 1997). 즉,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타인의 긍정적인 피드백이 미래의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말한다. Gilbert(2001)는 긍정적 평가로 인해 자신에게 쏠린 사회적 관심이 집단 내의 경쟁이나 질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받는 긍정적인 피드백에 두려움을 갖는다고 주장하였으며, Ryckman, Thornton, & Gold(2009)의 연구에서는 겸손한 사람일수록 경쟁을 더 많이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긍정적 평가의 두려움을 감소시키려는 사람들은 겸손함을 사용해 자신에게 향하는 긍정적인 초

점을 감소시키고 미래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것 같으며, 겸손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도 높을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준거 타당도 측정을 위해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겸손 반응 척도(MRS)를 한국판으로 타당화하고자 하였다. 우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한국판 MRS의 요인 구조가 어떤지를 확인하였다. 이후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요인구조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교차타당화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와 수렴 및 변별, 준거 타당도를 확인하여 한국판 MRS의 심리측정적 유용성을 확인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BK21FOUR 글로벌 핵심 리더 연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본 연구의 참가자는 설문조사 업체를 통해 모집된 만 18세부터 69세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모든 참가자는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의 모든 과정에 동의하였다. 응답은 2021년 12월 7일부터 8일까지 약 이틀에 걸쳐 수집되었다. 설문에 참여한 참가자는 총 661명이었으며, 그 중 미대상자 184명, 중도포기 104명, 불성실데이터 53명을 제외한 320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참가자는 남성 160명(50%), 여성 160명(50%)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45.4(SD=14.3)세였다. 본 연구는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CBNU-202205-HR-0047)을 받아 진행되었다.

측정도구

겸손 반응 척도(Modest Responding Scale; MRS)

겸손 반응 척도는 Whetstone, Okun와 Cialdini (1992)이 개발한 척도로 겸손에 대한 성향(the inclination toward modesty), 겸손 반응에 대한 사회적 바람직성(perceived social desirability of modest responses), 자랑하는 성향(propensity to brag)인 3요인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1점 '전혀 동의하지 않음'부터 7점 '매우 동의함'인 7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되며, 해당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척도를 국내 심리학과 교수 1명과 임상심리 전공 석사과정생 2명이 번역한 후 한국어, 영어 이중언어자 1명이 역번역 하였다. 번역과 역번역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문항을 수정 및 논의하여 최종 문항을 선정하였다. 본 타당화 연구는 BK21FOUR 글로벌 핵심 리더 연구 지원 사업의 일부로 진행하였으며, 해당 사업의 해외 공동 연구진이 척도 타당화에 대해 원작자의 허락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HEXACO-60 단축형 정직/겸손성 척도 (HEXACO Personality Inventory-Revised 60-Item Version Honesty-Humility)

기존 HEXACO-PI-R의 단축형으로, Ashton와 Lee(2009)가 개발하고 번안한 척도로 진실성(예, 승진이나 월급인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사에게 아부하지 않을 것이다.), 도덕성(예, 나는 많은 적든 뇌물은 받지 않을 것이다.), 청렴성(예,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내 인생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겸손성(예, 나는 보통사람들보다 더 존경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의 4개 소척도, 10문항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진실성, 도덕성, 청렴성 소척도를 합친 정직성 점수와 변별타당도를, 겸손성 소척도와는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척도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 '매우 그런 편이다.'인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되었으며, 본 연구의 정직/겸손성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70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Fear of Positive Evaluation scale; FPE)

타인에게 받는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Weeks, Heimberg & Rodebaugh(2008)이 개발하였으며, 본 논문에는 박서정 등(2010)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된 FPE는, '다른 사람에게 내 재능이 좋은 인상을 받으리라 생각해도 그들에게 내 재능을 보여주는 것이 불편하다.'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으면 불안해진다.' 등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잠재적인 응답 오류를 탐지하기 위해 5번과 10번 문항이 역채점으로 구성되었으며, 총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척도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10점 '매우 그렇다'의 10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되며,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MRS와 준거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박서정 등(2010)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85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는 .86으로 나타났다.

분석절차

모든 자료는 Jamovi 2.3 versio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자료의 정규성 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으며, 왜도의 절댓값은 2 미만, 첨도의 절댓값은 7 미만인 경우 자료가 정규성 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 있다(West, Finch & Curran, 1995). 다음으로 문항-총점 간 상관 계수를 산출하여 척도와 상관성이 낮은 문항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 후 한국판 MRS의 교차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320명의 자료를 무작위 추출하여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로 추출된 160명의 자료는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160명의 자료는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에 사용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KMO 표본 적합도 지수(Kaiser-Meyer-Olkin Measures of Sampling Adequacy)와 Bartlett 구형성 검정(Bartlett's Test of Sphericity) 결과를 살펴보았다. KMO는 변수 간의 상관성을 나타내는 척도로 1에 가까울수록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절한 자료들로 해석할 수 있다. .9 이상이면 좋음(marvelous), .8 이상이면 양호(meritorious), .6 ~ .7 이상이면 보통(mediocre), .5 이하이면 부적절(unacceptable)하다고 판단한다(Kaiser, 1974). Bartlett 구형성 검정은 수집된 자료들의 상관관계수 행렬이 단위행렬이라는 영가설을 검증하는 것으로, p 값이 유의수준인 .05보다 작아야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다(Bartlett, 1950). KMO 표본 적합도 지수와 Bartlett 구형성 검정을 확인한 후, 한국판 MRS의 요인구조를 탐색하였다. 요인 추출 방법으로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다. 최대우도법은 수집된 자료의 대상을 표본으로 가정하여 요인 수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Lee, 2002). 회전방식으로는 사각회전을 사용하였으며 그 중 문항 간 상관을 고려한 Oblimin 방법을 사용하였다(Worthington & Whittaker, 2006).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고유값과 무선 표집 자료의 고유값을 비교하여 요인 수를 추정하는 평행 분석(parallel analysis)을 사용하였다(Horn, 1965). 평행 분석은 수집한 자료에 요인구조가 존재한다면, 요인구조가 들어있지 않은 무선자료를 토대로 구한 고유값보다 자료의 고유값이 커져야 한다는 논리를 활용한 방법이다(설현수, 2022). 주로 스크리 도표(scree plot)를 활용하여 수집한 자료의 고유값이 무선자료보다 작아지는 지점 바로 전에서 요인 개수를 정한다. 다음으로 최종 문항 선정 시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이 .4 이상인 문항들을 선택하였다(Russell, Kahn, Spoth & Altmaier, 1998).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확정된 문항을 바탕으로 나머지 160명의 자료를 통해 요인구조의 적합성

을 확인하고 단일 모형과 비교하는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Chi-Square Test of Model Fit (x^2), Comparative Fit Index (CFI), Tucker Lewis Index (TLI), Standard Root Mean Residual (SRMR),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를 통해 확인하였다. x^2 검증은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 영가설이 쉽게 기각되어 요인 수를 과대추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CFI, TLI, RMSEA를 함께 보고한다 (Fabrigar, Wegener, MacCallum & Strahan, 1999). CFI와 TLI는 .9 이상일 경우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며, 최소 .7 이상이어야 한다(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1998). SRMR은 .05보다 작을 경우 좋은 적합도로, .08보다 작을 경우 적절한 적합도로 볼 수 있다(Byrne, 2013; Hu & Bentler, 1999). RMSEA의 경우는 .05보다 작으면 좋은 적합도, .08보다 작으면 괜찮은 적합도, .10보다 작으면 보통 적합도를 나타낸다 (Browne & Cudeck, 1993). 척도의 탐색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을 완료한 후 최종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 자료를 사용하여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그 후 한국판 MRS의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수렴 및 변별 타당도와 준거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의 크기는 Cohen(1988)의 제안에 따라 .10은 작은 크기, .30은 중간 크기, .50은 큰 크기로 해석하였다.

결 과

문항분석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기 전 MRS 척도의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표 1). 모든 문항은 웨도 절댓값 2 미만, 첨도 절댓값 7 미만의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West et al., 1995). 각 문항과 총점 간 상관 범위는 .19-.80이었으며, 문항 삭제 시 내적타당도가 증가하는 문항이 없었으므로, 20개 문항 모두 분석에 사용되었다.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기 전, 자료가 요인 분석에 적합한지 알아본 결과, KMO 표본 적합도 지수는 0.87인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 검정 결과는 $x^2(171, N = 160) = 1558, p < .001$ 으로 본 자료는 요인 분석을 하기에 적합하였다. 한국판 MRS의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해 평행 분석을 실시하였다(그림 1). 요인이 3개일 때까지 수집된 자료의 고유값이 무선자료의 고유값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인이 4개가 되었을 경우 무선자료의 고유값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MRS의 최종 요인 수를 3개로 정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요인 부하량이 .4가 넘지 않는 17번 문항은 삭제되었다. 10번 문항은 요인 1과 요인 2에 중복 부하되었지만, 두 요인 사이의 요인 부하량 차이가 .1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요인 부하량이 더 큰 요인 2에 부하되었다. 결과적으로 한국판 MRS는 3요인 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x^2(133, N = 160) = 269, p < .001, TLI = 0.860, RMSEA = 0.079$ (90% CI: .067-.094). 최종 3요인의 총설명량은 50.2%였다. 요인 1은 전체 변량 중 25.7%를 설명하였으며, “나는 내가 잘했음을 알 때조차, 남들에게 스스로에 대해 좋게 말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싫어한다.”와 같이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상황에서의 겸손 성향을 측정하는 9문항으로 구성되어 ‘대인관계적 겸손성향 (interpersonal modesty)’이라 이름 붙였다. 요인 2는 전체 변량 중 14.4%를 설명하였다. “사람들 앞에서 으스대는 것은 사회적으로 진짜 실수하는

표 1. 한국판 MRS의 문항분석($N = 320$)

문항번호	M	SD	문항 총점 상관	문항 삭제 시 내적타당도
1	4.11	1.69	.68	.88
2	3.88	1.62	.70	.88
3	3.27	1.57	.65	.88
4	3.56	1.49	.44	.89
5	3.13	1.42	.59	.88
6	4.78	1.57	.58	.89
7	3.73	1.55	.75	.88
8	4.58	1.62	.58	.89
9	3.92	1.55	.20	.90
10	3.74	1.48	.67	.88
11	3.55	1.58	.76	.88
12	4.08	1.59	.75	.88
13	3.72	1.53	.80	.88
14	3.63	1.46	.36	.89
15	3.97	1.60	.59	.88
16	4.03	1.50	.23	.90
17	4.14	1.45	.44	.89
18	4.12	1.54	.60	.88
19	3.85	1.41	.24	.89
20	3.92	1.51	.70	.88

주 1. M = Mean, SD = Standard Deviation

그림 1. 한국판 MRS의 스크리 도표(Scree plot)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표 2. 한국판 MRS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설명	요인			고유값
		1	2	3	
13	나는 내가 잘 했음을 알 때조차, 남들에게 스스로에 대해 좋게 말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81	.07	.00	.27
3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싫어한다.	.81	-.03	-.18	.37
20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긍정적 자질에 대해 말하는 데 어색함을 느낀다.	.75	-.01	.11	.42
1	내게 장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을 때조차 내 장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어렵다.	.74	-.10	.22	.45
5	나는 나의 장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지 않다.	.72	-.08	-.20	.52
11	사람들에게 나의 강점과 성공에 대해 말하는 것은 언제나 부끄러운 일이다.	.65	.20	.04	.40
12	나는 나의 성취를 남에게 말하기보다 혼자 간직하는 것을 선호한다.	.58	.25	.20	.38
7	나는 내 성공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야 할 때마다 불편하다.	.53	.27	.06	.50
2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 자랑하는 것은 무례하다고 생각한다.	.51	.34	-.13	.45
8	사람들 앞에서 으스대는 것은 사회적으로 진짜 실수하는 것이다.	-.08	.83	-.01	.37
6	당신이 무언가 갖고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 과시해서는 안 된다.	-.03	.70	.09	.51
18	나는 비록 그 사람들이 뛰어날지라도, 그들이 자신의 성취에 대해 과하게 말하는 것은 무례하다고 믿는다.	.26	.56	-.04	.48
15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자랑하는 것이 미움 받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항상 느껴왔다.	.22	.54	-.07	.54
10	집단 내에서 자신에 대해 자랑하는 것은 어느 경우나 사회적으로 부적절하다.	.34	.46	.13	.48
9	내가 중요한 무언가를 성취할 때마다 남에게 이에 대해 말할 것에 들뜬다.	-.22	.05	.71	.48
14	내가 성공을 거두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18	-.03	.58	.62
19	사람들이 나에게 그들의 성공에 대해 말할 때, 나도 그들에게 내 성공에 대해 말하길 좋아한다.	-.03	.07	.57	.66
4	나는 무언가 잘 해냈을 때, 그것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좋아한다.	.28	.06	.56	.56
16	나의 친구들은 내가 무언가 성취했을 때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12	-.22	.47	.75
17	누군가 나에게 최근의 성공에 대해 말해달라고 할 때, 내가 성취한 것을 줄여서 말하는 경향이 있다.	.21	.28	-.30	.75

주 1. 각 요인에 해당하는 요인부하량은 굵게 표시하였음.

주 2. 요인 1 = 대인관계적 겸손 성향; 요인 2 = 사회적 바람직성; 요인 3 = 겸허한 태도.

것이다.”, “당신이 무언가 갖고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 과시해서는 안 된다.”와 같은 겸손에 대한 사회적 바람직성을 묻는 5문항으로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이라 칭하였다. 마지막 요인 3은 전체 변량 중 10.1%를 설명하였으며, “내가 중요한 무언가를 성취할 때마다 남에게 이에 대해 말할 것에 들뜬다.”, “내가 성공을 거두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와 같은 자랑하는 성향인 역채점 5문항으로 구성되어 ‘겸허한 태도(attitude of humility)’으로 명명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3요인 구조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표 3). 겸손을 측정하는 다른 검사들 중 단일 요인 구조가 아닌 것들은 대부분 modesty가 아닌 humility를 측정하고 있으며, modesty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검사들인 HEXACO나 NEO-PI-R이 하위 소척도로 단일 요인의 modesty를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 모형으로는 단일 요인 구조를 선택하였다. 단일요인 모형의 경우 CFI, TLI, SRMR, RMSEA 모두 좋은 적합도 지수를 나타내지 못했으나, 3요인 모형의 경우 SRMR이 적절한 적합도 지수를 충족시켰으며, CFI, TLI, RMSEA도 수용할만한 적합도 지수를 보였다. 따라서 기존 MRS의 요인구조인 3요인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모형에 대한 요인부하량 및 자세한 표준화된 계수 추정치들은 표 4에 제시하였다. 3요인 구조 문항의 표준화된 계수 추정치들은 .51-.88의 범위였으며,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였다, *all ps* < .001.

신뢰도 검증

최종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320명의 전체 자료를 통해 19문항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 및 내적타당도 계수를 산출하였다(표 5). 총 320명의 참가자들의 문항 평균은 3.87(*SD* = 0.89)이었으며, 문항의 전체 내적 타당도 계수는 .89였다. 그 중 대인관계적 겸손성향 요인의 내적타당도는 .92, 사회적 바람직성 요인의 내적타당도는 .81, 겸허한 태도 요인의 내적타당도는 .74였다. 각 문항과 총점 간 상관 범위는 .21-.79이었으며, 문항 삭제 시 전체 척도의 내적타당도를 크게 저하시키는 문항은 없었다.

한국판 MRS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한국판 MRS의 최종 문항을 토대로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한국판 MRS의 평균은 남성이 75.83점(*SD* = 16.40), 여성이 71.31점(*SD* = 17.17)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유의하였고 작은 크기에 가까웠다, $t(318) = 2.41, p < .05$, Cohen's *d* = 0.27. 요인 별로 차이를 살펴본 결

표 3. MRS의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모형	χ^2	df	CFI	TLI	SRMR	RMSEA	RMSEA 90% CI	
							Lower	Upper
단일요인	582***	170	0.726	0.694	0.106	0.123	0.112	0.134
3요인	338***	149	0.870	0.851	0.077	0.089	0.076	0.102

주 1. CI = Confidence Interval, CFI = Comparative Fit Index, TLI = Tucker Lewis Index, SRMR = Standard Root Mean Residual, RMSEA =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p* < .001.

표 4. 3요인 구조 MRS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번호	Estimate	SE	Z	p	Stand. Estimate
대인관계적 검손 성향	MRS_13	1.31	0.09	13.89	< .001	.88
	MRS_03	1.11	0.11	9.76	< .001	.69
	MRS_20	1.06	0.10	10.29	< .001	.72
	MRS_01	1.16	0.12	9.94	< .001	.70
	MRS_05	0.96	0.10	9.49	< .001	.68
	MRS_11	1.23	0.10	11.82	< .001	.80
	MRS_12	1.13	0.11	9.92	< .001	.70
	MRS_07	1.36	0.10	13.07	< .001	.85
	MRS_02	1.14	0.11	10.11	< .001	.71
사회적 바람직성	MRS_08	1.09	0.13	8.56	< .001	.66
	MRS_06	0.99	0.13	7.53	< .001	.59
	MRS_18	0.96	0.12	8.16	< .001	.63
	MRS_15	1.06	0.12	8.62	< .001	.66
	MRS_10	1.15	0.11	10.35	< .001	.76
겸허한 태도	MRS_04	0.79	0.13	6.08	< .001	.51
	MRS_09	1.16	0.12	9.60	< .001	.76
	MRS_14	0.86	0.12	7.01	< .001	.58
	MRS_16	0.80	0.12	6.70	< .001	.56
	MRS_19	0.96	0.11	8.61	< .001	.69

주 1. MRS = 겸손 반응 척도(Modest Responding Scale)

주 2. SE = Standard Error, Z = Estimate/SE

과, 대인관계적 겸손성향 및 사회적 바람직성 요인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t(318) = 2.37, p < .05$, Cohen's $d = 0.26$; $t(318) = 2.04, p < .05$, Cohen's $d = 0.23$, 겸허한 태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318) = 0.57, p = .567$, Cohen's $d = 0.06$.

연령에 따른 한국판 MRS 역시 겸손 점수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은 ~ 중간 효과크기였다, $F(4, 315) = 3.89, p < .01, \eta^2 = 0.05$. 한국판 MRS의 총점으로 Tukey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30대의 겸손이 60대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t(315) = -3.85, p < 0.001$, Cohen's $d = -0.67$, 그 외 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전체 연령의 겸손 하위요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대인관계적 겸손성향 및 사회적 바람직성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F(4, 315) = 3.30, p < .05, \eta^2 = 0.04$; $F(4, 315) = 6.65, p < .001, \eta^2 = 0.08$, 겸허한 태도 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4, 315) = 0.22, p = .926, \eta^2 = 0.00$. 변량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령에 대

표 5. MRS의 최종 문항 분석 및 신뢰도(N = 320)

요인	문항번호	M	SD	문항 총점 상관	문항 삭제 시 내적타당도
대인관계적 겸손 성향	13	3.72	1.53	.79	.88
	3	3.27	1.57	.64	.88
	20	3.92	1.51	.70	.88
	1	4.11	1.69	.68	.88
	5	3.13	1.42	.58	.88
	11	3.55	1.58	.75	.88
	12	4.08	1.59	.76	.88
	7	3.73	1.55	.75	.88
	2	3.88	1.62	.70	.88
사회적 바람직성	8	4.58	1.62	.58	.88
	6	4.78	1.57	.58	.88
	18	4.12	1.54	.59	.88
	15	3.97	1.60	.59	.88
	10	3.74	1.48	.68	.88
겸허한 태도	9	3.92	1.55	.21	.90
	14	3.63	1.46	.37	.89
	19	3.85	1.41	.26	.89
	4	3.56	1.49	.45	.88
	16	4.03	1.50	.25	.89

표 6. 한국판 MRS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명)	전체	요인 1	요인 2	요인 3
		M(SD)			
성별	남자(160)	75.83(16.40)	34.82(10.54)	21.85(5.66)	19.16(5.11)
	여자(160)	71.31(17.17)	31.96(11.03)	20.52(6.02)	18.82(5.23)
연령	18-29세(48)	72.27(17.18)	34.52(10.36)	19.15(5.95)	18.60(5.57)
	30-39세(65)	67.63(16.70)	29.52(12.15)	19.23(6.29)	18.88(5.53)
	40-49세(65)	73.71(15.27)	33.54(10.75)	21.06(5.43)	19.11(5.03)
	50-59세(76)	74.79(17.24)	33.53(9.92)	22.42(5.04)	18.84(4.66)
	60-69세(66)	78.80(16.67)	36.08(10.26)	23.29(5.76)	19.44(5.30)
	총점		73.57(16.92)	33.39(10.86)	21.18(5.87)

주 1. M = Mean, SD = Standard Deviation

주 2. 요인 1 = 대인관계적 겸손성향, 요인 2 = 사회적 바람직성, 요인 3 = 겸허한 태도

한 Tukey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인관계적 겸손성향과 사회적 바람직성 요인 모두에서 30대보다 60대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315) = -3.50, p < 0.01$, Cohen's $d = -0.61$; $t(315) = -4.09, p < .001$, Cohen's $d = -0.71$.

수렴 및 변별타당도

최종 척도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판 MRS와 HEXACO의 정직성 점수 및 겸손성 소척도 간의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7). 먼저 한국판 MRS 전체 척도와 소척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대인관계적 겸손성향 소척도, $r = .92, p < .001$, 사회적 바람직성 소척도, $r = .80, p < .001$, 겸허한 태도 소척도, $r = .44, p < .001$ 은 모두 전체 척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인관계적 겸손성향과 사회적 바람직성 소척도는 매우 큰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겸허한 태도 소척도와는 중간에서 큰 크기의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렴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HEXACO 겸손성 소척도와의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작은 크기의 정적 상

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15, p < .01$. 소척도 간의 상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판 MRS의 대인관계적 겸손성향과 사회적 바람직성 소척도는 HEXACO 겸손성 소척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all rs > .04, all ps > .45$, 겸허한 태도 소척도와는 중간 크기의 상관을 보였다, $r = .37, p < .001$. 변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HEXACO의 정직성 점수와의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r = .10, p = .08$. 소척도 간의 상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판 MRS의 대인관계적 겸손성향과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r = -.05, p = .42$, 사회적 바람직성 및 겸허한 태도 소척도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13, p < .05$; $r = .27, p < .001$.

준거타당도

한국판 MRS의 준거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한국판 MRS와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와 한국판 MRS가 큰 크기의 상관을 보였다, $r = .54, p < .001$. 구체적으로 대인관계

표 7. 한국판 MRS와 HEXACO 정직/겸손성, FPE 사이의 Pearson 상관분석

	1	2	3	4	5	6	7
1. MRS_총점	-						
2. MRS_대인관계적 겸손성향	0.92***	-					
3. MRS_사회적 바람직성	0.80***	0.65***	-				
4. MRS_겸허한 태도	0.44***	0.15***	0.11	-			
5. HEXACO_정직	0.10	-0.05	0.13*	0.27***	-		
6. HEXACO_겸손	0.15**	0.03	0.04	0.37***	0.37***	-	
7. FPE	0.54***	0.60***	0.31***	0.14*	-0.02	0.09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주 2. MRS = 겸손 반응 척도; HEXACO_정직 = HEXACO-60 단축형 정직/겸손성 척도의 도덕성, 진실성, 청렴성의 합; HEXACO_겸손 = HEXACO-60 단축형 정직/겸손성 척도의 겸손성; FPE =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

적 겸손성향 소척도와는 큰 크기의 상관을 보였다, $r = .60, p < .001$. 사회적 바람직성 소척도와 중간 크기의 상관을 보였으며, $r = .31, p < .001$, 겸허한 태도 소척도와는 작은 크기의 상관을 보였다, $r = .14, p < .001$.

논 의

본 연구는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겸손을 측정하는 MRS 척도를 한국판으로 타당화하였다. 총 320명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한국판 MRS의 신뢰도, 요인구조, 적합도,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한국판 MRS는 원척도에서 한 문항이 제외된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원척도와 동일한 3요인 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MRS의 신뢰도는 역시 양호한 수준을 보였으며, 준거타당도와 변별 타당도 또한 양호하였다. 그러나 HEXACO 겸손성 소척도를 사용한 수렴 타당도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modesty와 humility는 공통점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 개념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한국판 MRS는 원척도와 동일한 3요인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역채점 문항으로 구성된 요인 3은 원척도와 동일한 문항 구성을 보였다. 요인 1은 1, 2, 3, 5, 7, 11, 12, 13, 20번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내용은 “나는 내가 잘했음을 알 때조차, 남들에게 스스로에 대해 좋게 말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긍정적 자질에 대해 말하는 데 어색함을 느낀다.”와 같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나 자신이 느끼는 겸손 성향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대인관계적 겸손 성향’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6, 8, 10, 15, 18번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이 “사람들 앞에서 으스대는 것은 사회적으로

진짜 실수하는 것이다.”, “당신이 무언가 갖고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 과시해서는 안 된다.”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사회적 바람직성’이라 이름 붙였다. 마지막 요인 3은 4, 9, 14, 16, 19번 문항으로, 그 내용이 “내가 중요한 무언가를 성취할 때마다 남에게 이에 대해 말할 것에 들뜬다.”, “내가 성공을 거두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와 같이 자신의 성취를 뽐내는 자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척도에서도 이 요인은 ‘자랑하는 성향(propensity to brag)’으로 묶인다. 그러나 요인 3은 역채점 문항들로만 구성되어 원척도의 요인명을 따라 자랑하는 성향으로 명명하면 마치 겸손의 하위 요인 중 ‘자랑을 하는 것’이 포함되는 듯한 인상을 주어 전체 척도의 해석 결과를 이해하는데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판 MRS의 요인 3은 ‘겸허한 태도(attitude of humility)’라 이름 붙였으며, 문항은 원척도의 propensity to brag과도 일치한다.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겸허는 우리나라에서 ‘잘난 체 하지 않고 스스로를 낮춤’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것이 ‘자랑하지 않는 성향’이라는 원척도의 의미를 잘 반영한다고 생각하여 3요인의 이름을 겸허한 태도라 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Gregg 등(2008)이 주장했던 것과 같이 겸손(modesty)이라는 구성 개념에 대인관계적 겸손 성향, 사회적 바람직성에 대한 추구와 같은 대인관계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과, 좀 더 개인 내적인 개념으로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지 않고 낮추는 성향(겸허, humility)이 포함되는 것이다. 즉 겸손은 개인내적인 특징과 대인관계적 특징, 사회적 바람직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개인내적인 특징이 더 강조되는 겸허에 비해 더 넓은 개념이라 볼 수 있겠다. 원척도와 달리 한국판 MRS에서 17번 문항(누군가 나에게 최근의 성공에 대해 말해달라고 할 때, 내가 성취한 것을 줄여서 말하는 경향이 있다.)은 2요인과 3요인에 교차부하 되어 제외되었다. 17번 문항의 교차부하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Cai 등(2011)의 연구에서 동양문화는 겸손한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명시적 자기고양을 낮춤과 동시에 암묵적 자기고양을 높이지만, 서양 문화에서는 명시적 자기고양만 높일 뿐 암묵적 자기고양을 높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양문화에서의 겸손은 능동적으로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태도를 통해 내적인 자기고양의 기반을 마련하는 행동으로 보이며, 타인의 요구에 의해 대답해야 하는 상황인 17번 문항이 동양문화에서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한국판 MRS의 구성 타당도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 따르면 19문항으로 구성된 3요인 구조가 가장 적절한 모형 적합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 모형인 단일요인의 적합도 지수보다 원척도와 동일한 3요인 구조가 한국판 MRS를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뢰도 분석 결과 19 문항이 높은 내적 합치도를 보였고 신뢰도를 크게 저하시키는 문항도 없었다. 이는 모든 문항이 일관되게 겸손을 측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겸허한 태도 소척도는 다른 소척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문항-총점 간 상관을 보였다. 한국판 MRS는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이 겸손의 대인관계적 특징과 관련이 있다. 겸허한 태도 소척도의 경우에는 다른 소척도보다 개인내적 특징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비교적 작은 상관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겸허한 태도 소척도는 총점 산출 시 역채점 된다. 역채점 문항의 사용은 척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내용과 어긋날 수 있으며, 부주의한 응답 반응을 초래할 수 있다(홍영근, 문지혜, 조현재, 2011; Rodebaugh, Woods, Thissen, Heimberg, Chambless & Rapee, 2004). 본 연구의 겸허한 태도 소척도의 상관이 낮은 것 또한 이러한 역채점 문항의 단점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MRS의 역채점 문항을 순방향 채점 문항으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보거나, 연구 특성에 따라서 겸허한 태도 소척도를 제외하여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셋째, 한국판 MRS 소척도의 신뢰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항 삭제 시 전체 문항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문항도 발견되지 않았다. 최종 문항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분석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겸손의 정도가 작은 효과 크기이지만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별로 살펴본 결과, 사회적 상황에서 주로 나타나는 겸손을 측정하는 요인인 대인관계적 겸손성향 및 사회적 바람직성 요인에서는 남녀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겸허한 태도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개인 내적인 겸손 성향은 남녀의 차이가 없으나, 사회적인 맥락의 겸손 성향은 남자가 더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행정연구원(2023)에 따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이 사회단체 참여율이 더 높으며,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공적인 사회적 상황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적인 사회적 상황에 더 많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인관계 및 사회적 바람직성에 해당하는 겸손을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사용하는 것일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겸손의 차이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 Terracciano 등(2005)의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겸손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Lindström 등(2023)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는 달리 여성의 겸손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연구들은 모두 한국판 MRS 척도가 측정하는 '겸허한 태도'에 해당되는 HEXACO-PI나 NEO-PI-R의 소검사를 사용하여 겸손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상황에 대한 겸손이 차이가 나는지를 알기는 어렵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경험하는 사회적 상황의 질적 차이(공적과 사적)가 실재하는지, 이에 따른 겸손 성향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연령에 따른 겸손 정도 차이는 30대가 60대보다 겸손 성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연령집단에서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요인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에서도 대인관계적 겸손 성향 및 사회적 바람직성 요인에서 30대가 60대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겸허한 태도에서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30대가 직장 등에서 자리를 잡으며 자신의 성취를 인정받기 시작하는 나이대라는 것을 고려해볼 때, 자신이 이룬 것에 대해 객관적으로 정당히 평가받는 것을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당연하고 편하게 여기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결과가 해당 연령대의 문화 차이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회 경제적 요인의 차이에서 오는 것인지는 추후 연구를 통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넷째, 한국판 MRS의 수렴 타당도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척도 타당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국내에 타당화된 척도 중 겸손(modesty)을 제대로 측정하는 척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저자들이 알고 있는 한 현재 국내에서 겸손을 측정하며 타당화된 척도는 관계적 겸손 척도와 HEXACO 정직/겸손성 척도만 존재한다. 그러나 관계적 겸손 척도는 앞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평가이지 자기 자신의 겸손성을 나타내는 척도가 아니라 본 연구에서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HEXACO 겸손성 소척도를 사용하여 수렴 타당도를 확인하였으나 상관 크기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한국판 MRS의 대인관계적 겸손성향 및 사회적 바람직성 소척도와의 유의하지 않은 상관을 보였으며 겸허한 태도 소척도와의 중간 크기의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HEXACO 정직/겸손성 척도 아래 존재하는 겸손 소척도는 이름이 modesty라고 되어 있지만, modesty의 개념보다는 humility의 개념에 더 가까웠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Modesty와 humility는 각 개념들이 맞추고 있는 초점이 무엇인지에 차이가 존재한다. 앞에서 기술하였듯이 modesty는 자신에 대한 정확한 관점을 가짐과 동시에 대인관계에서 자신에게 향

하는 관심이나 질투를 줄이는 목적을 갖는 개념으로 대인관계적 측면이 두드러진다(Sedikides, Gregg & Hart, 2007). 반면 humility는 타인에게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자기표현 전략이라는 점에서 modesty와 공통점을 지니지만 자신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개인내적 측면이 더 두드러진 개념이다(Knight & Nadel, 1986; Tangney, 2002). 이 두 개념의 차이로 인해 HEXACO 겸손성 소척도와의 상관이 작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즉, HEXACO 겸손성 소척도는 modesty가 아닌 humility에 더 초점을 맞춘 요인이라는 점에서 MRS와의 수렴타당도가 작은 크기의 상관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modesty 개념에 가까운 척도를 타당화하여 이를 MRS와 비교하거나 겸손 성향을 측정하는 새로운 척도를 개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판 MRS의 준거타당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데 겸손이 사용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준거타당도로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와 MRS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한국판 MRS는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큰 크기의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MRS가 측정하는 겸손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대인 관계에서 지나치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이며, 추후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를 낮추는 행동을 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HEXACO 겸손성 소척도는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한국판 MRS가 측정하고자 하는 modesty의 개념이 humility와 다르다는 본 연구의 주장을 어느 정도 입증하는 결과이다. HEXACO 겸손성 소척도가 측정한 humility는 사회적 상황이 아닌 개인내적인 특성을 더 띄고 있으며 modesty의 대인관계적 측면과는 크게 겹치지 않는 개념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modesty는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과 상호작용할 때 나타나는 겸손에 대한 특징이

좀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두려워하는 특성으로 나타나기 쉬우나, humility의 경우에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보다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는 개인 내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느끼기 쉬운 불안 관련 인지인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는 관련이 적은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modesty와 humility를 구분하는 큰 차이점은 '사회적 상황'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판 MRS의 변별타당도는 비교적 양호하였다. MRS는 정직성 소척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소척도와와의 상관에서는 정직성 점수와 한국판 MRS의 겸허한 태도 소척도만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에서 기술하였듯이 겸허한 태도 소척도는 다른 소척도에 비해 humility에 가까운 특성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실제 상관 값을 확인해 보더라도 HEXACO의 정직성 소척도와 MRS의 겸허한 태도 소척도, HEXACO의 겸손성 소척도는 동일한 상관값을 보였다. 이는 '겸허한 태도'의 개념을 제외하고는 MRS가 측정하는 modesty는 하나의 소척도로 묶여 있을 만큼 유사한 개념이지만 정직성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좋은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였다. Hair 등(1998)의 연구에서는 CFI와 TLI가 .9 이상일 경우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며, Browne과 Cudeck(1993)은 RMSEA가 .08보다 작을 경우 괜찮은 적합도라고 하였다. 이러한 기준치를 고려했을 때 본 연구의 3요인 구조는 다소 부족한 적합도 지수를 갖는다. 이는 부족한 표본 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총 320명으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각각 160명으로 데이터를 나누었다. 요인분석에서 문항 수의 10배 이상의 데이터를 권장한다는 연구 결과(Lee, 2002)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 수는 매우 작았기 때문에 좋은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한국판 MRS의 수렴타당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MRS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modesty를 측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국내 유일한 타당화된 척도인 HEXACO 겸손성 소척도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연구 결과 HEXACO의 modesty 소척도는 humility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modesty 개념이 제대로 측정되었는지는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의 상관을 통한 동시타당도로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판 MRS의 수렴타당도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기하였듯이 modesty를 측정하는 다른 척도들이 타당화가 이루어진 후에 그 척도들과의 상관을 분석하는 후속연구를 진행하거나 겸손을 측정하는 새로운 척도를 개발하고 이것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직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은 modesty와 humility의 구성개념을 발견하고 후속연구의 뿌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modesty를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상황에서 자신을 낮춘다는 뜻의 '겸손'으로, humility를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며 스스로를 낮춘다는 뜻의 '겸허'로 번역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용어가 다르게 번역되고 사용해야 이 두 개념이 서로 차이가 있다는 점이 두드러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후속연구에서 두 개념의 차이를 명확히 밝히고 이론적 개념으로서 modesty와 humility를 구분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겸손'이라는 특성이 동양문화권에 두드러지게 나타남에도 한국에서 적절하게 타당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MRS 척도를 타당화하였다. 특히 국내에서 이전에 타당화되지 않은 modesty에 대한 척도를 가장 먼저 타당화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현재까지 HEXACO 정직/겸손성 척도의 하위요인으로 존재하는 겸손성 소척도만이 modesty를 측정하는 척도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HEXACO 겸손성 소척도는 modesty의 개념보다는 humility의 개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판 MRS가 modesty의 개념을 중점적으로 측정하는 국내 유일한 척도임에 큰 의의를 갖는다. 후속연구에서는 '사회적 상황'에서의 겸손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판 MRS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전국에서 모집한 참가자의 자료로 연구를 진행하여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 대학생뿐만 아니라 70세 미만의 연령대를 모두 포함하였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에 본 척도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본 척도를 사용하여 겸손 성향을 파악하고 문화차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저자 소개

김유나는 충북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석사과정으로 재학 중이다. 사회불안, 내·외현화 장애 아동 및 부모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안정광은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임상 및 상담심리학을 전공하였으며, 사회불안과 자의식 정서, 인지행동치료, 내·외현화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 부모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김은미, 김기범 (2004). 사회적 맥락에 따른 겸손 언행 의미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18(3), 47-60.

박서정, 이정애, 오강섭 (2010). 한국판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K-FPES) 타당화.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9(1), 205-221.

설현수 (2022). JAMOVI 통계프로그램의 이해와 활

용 3판. 서울: 학지사.

신나영, 임영진 (2019). 관계적 겸손 척도의 한국 어판 타당화 연구. *재활심리연구*, 26(1), 95-109.

유태용, 이기범 (2004). 한국판 HEXACO 성격검사의 구성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3), 61-75.

한국행정연구원, 20203. 「사회통합실태조사」.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70>

홍영근, 문지혜, 조현재 (2011). 한국판-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 II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1), 117-134.

Ashton, M. C., & Lee, K. (2009). The HEXACO-60: A short measure of the major dimensions of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1(4), 340-345.

Bartlett, M. (1950). Tests of significance in factor analysi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Statistical Section)*, 3, 77-85.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and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Byrne, B. M. (2013).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Mplus. Basic concepts, applications, and programming*. New York: outledge.

Cai, H., Sedikides, C., Gaertner, L., Wang, C., Carvallo, M., Xu, Y., O'Mara, E. M., & Jackson, L. E. (2011). Tactical self-enhancement in China: Is modesty at the service of self-enhancement in East Asian culture?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2(1), 59-64.

Cialdini, R. B., & De Nicholas, M. E. (1989). Self-presentation by associ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4), 626.

Cialdini, R. B., Wosinska, W., Dabul, A. J., Whetstone-Dion, R., & Heszen, I. (1998). When

- social role salience leads to social role rejection: Modest self-presentation among women and men in two cultur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5), 473-481.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Fabrigar, L. R., Wegener, D. T., MacCallum, R. C., & Strahan, E. J. (1999). Evaluating the use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 psychological research. *Psychological Methods*, 4, 272-299.
- Gilbert, P. (2001). Evolution and social anxiety: The role of attraction, social competition, and social hierarchies. *Psychiatric Clinics*, 24(4), 723-751.
- Gregg, A. P., Hart, C. M., Sedikides, C., & Kumashiro, M. (2008). Everyday conceptions of modesty: A prototype analy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7), 978-992.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Upper saddle River. *Multivariate Data Analysis* (5th ed) *Upper Saddle River*, 3(3), 207-219.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Kaiser, H. F. (1974). An index of factorial simplicity. *Psychometrika*, 39(1), 31-36.
- Knight, P. A., & Nadel, J. I. (1986). Humility revisited: Self-esteem, information search, and policy consistency.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38(2), 196-206.
- Lee, K., & Ashton, M. C. (2004).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HEXACO personality inventory.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39(2), 329-358.
- Lee, Y. J. (2002). *Understanding factor analysis*. Seoul, Korea: SukJung.
- Lindström, J., Bergh, R., & Akrami, N. (2023). Low modesty linked to feeling deprived within advantaged (but not disadvantaged) group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03, 104356.
- Powers, T. A., & Zuroff, D. C. (1988). Interpersonal consequences of overt self-criticism: A comparison with neutral and self-enhancing presentations of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6), 1054-1062.
- Rodebaugh, T. L., Woods, C. M., Thissen, D. M., Heimberg, R. G., Chambless, D. L., & Rapee, R. M. (2004). More information from fewer questions: the factor structure and item properties of the original and brief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16(2), 169-181.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29.
- Ryckman, R. M., Thornton, B., & Gold, J. A. (2009). Assessing competition avoidance as a basic personality dimension. *The Journal of psychology*, 143(2), 175-192.
- Schlenker, B. R., & Leary, M. R. (1982). Audiences' reactions to self-enhancing, self-denigrating, and accurate self-presenta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8(1), 89-104.
- Schütz, A. (1997). Self presentational tactics of talk show guests: a comparison of politicians, experts, and entertainers 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7(21), 1941-1952.
- Sedikides, C., Gregg, A. P., & Hart, C. M. (2007). The importance of being modest. In C. Sedikides & S. J. Spencer (Eds.), *The Self* (pp. 163-184). New York: Psychology Press.
- Stires, L. K., & Jones, E. E. (1969). Modesty versus self-enhancement as alternative forms of

- ingratiating.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2(2), 172-188.
- Tangney, J. P. (2002). Humility.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411-419.
- Terracciano, A., McCrae, R. R., Brant, L. J., & Costa Jr, P. T. (2005).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analyses of the NEO-PI-R scales in the Baltimore Longitudinal Study of Aging. *Psychology and aging*, 20(3), 493-506.
- Wallace, S. T., & Alden, L. E. (1995). Social anxiety and standard setting following social success or failur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9(6), 613-631.
- Wallace, S. T., & Alden, L. E. (1997). Social phobia and positive social events: the price of succes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3), 416-424.
- Weeks, J. W., Heimberg, R. G., & Rodebaugh, T. L. (2008). The Fear of Positive Evaluation Scale: Assessing a proposed cognitive component of social anxiety.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2(1), 44-55.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 Wherstone, M. R., Okun, M. A., & Cialdini, R. B. (1992). The modest responding scale. In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Society, San Diego, CA.
- Worthington, R. L., & Whittaker, T. A. (2006). Scale development research: A content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for best practice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4(6), 806-838.
- Xiaohua Chen, S., Bond, M. H., Chan, B., Tang, D., & Buchtel, E. E. (2009). Behavioral manifestations of modest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0(4), 603-626.

1 차원고접수 : 2022. 07. 27.
수정원고접수 : 2023. 01. 30.
최종게재결정 : 2023. 05. 05.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Modest Responding Scale

Yu-Na Kim

Jung-Kwang Ahn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concepts of modesty and humility have been confusing in many studies. Measures developed to assess modesty have not distinguished between the two concepts. This study aimed to validate the Korean version of the Modest Response Scale (MRS) developed by Whetstone, Okun, and Cialdini(1992). A total of 661 participants conducted the survey, and the data of 320 participants were used for analysis. We conducted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n half of the randomly selected data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ith the remaining half for cross-validation verification. As a result of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K-MRS had a 19-item three-factor structure (inclination toward interpersonal modesty, social desirability, and attitude of humility), excluding one item that did not attain the set factor load. According to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the three-factor model showed good model fit and had suitable reliability. The convergent, discriminant and criterion validity of K-MRS was confirmed by correlation analysis with the HEXACO honesty/humility scale, the fear of positive evaluation scale. The K-MRS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HEXACO Humility Scale, but no significant correlation was found with HEXACO Honesty score. It also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fear of positive evaluation scale. Our findings suggest that the concepts of modesty and humility have different meanings.

Keywords: modesty, humility, inclination toward interpersonal modesty, social desirability, attitude of humility, validation

부록: 겸손 반응 척도(Modest Responding Scale; MRS)

다음 문항들을 읽고 동의하는 혹은 동의하지 않는 정도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전혀 동의하지 않음 ----- 매우 동의함						
	1	2	3	4	5	6	7
1. 내게 장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을 때조차 내 장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어렵다.	1	2	3	4	5	6	7
2.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 자랑하는 것은 무례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3.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싫어한다.	1	2	3	4	5	6	7
4. 나는 무언가 잘 해냈을 때, 그것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좋아한다.	1	2	3	4	5	6	7
5. 나는 나의 장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지 않다.	1	2	3	4	5	6	7
6. 당신이 무언가 갖고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 과시해서는 안 된다.	1	2	3	4	5	6	7
7. 나는 내 성공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야 할 때마다 불편하다.	1	2	3	4	5	6	7
8. 사람들 앞에서 으스대는 것은 사회적으로 진짜 실수하는 것이다.	1	2	3	4	5	6	7
9. 내가 중요한 무언가를 성취할 때마다 남에게 이에 대해 말할 것에 들뜬다.	1	2	3	4	5	6	7
10. 집단 내에서 자신에 대해 자랑하는 것은 어느 경우이나 사회적으로 부적절하다.	1	2	3	4	5	6	7
11. 사람들에게 나의 강점과 성공에 대해 말하는 것은 언제나 부끄러운 일이다.	1	2	3	4	5	6	7
12. 나는 나의 성취를 남에게 말하기보다 혼자 간직하는 것을 선호한다.	1	2	3	4	5	6	7
13. 나는 내가 잘 했음을 알 때조차, 남들에게 스스로에 대해 좋게 말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1	2	3	4	5	6	7
14. 내가 성공을 거두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1	2	3	4	5	6	7
15.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자랑하는 것이 미움 받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항상 느껴왔다.	1	2	3	4	5	6	7
16. 나의 친구들은 내가 무언가 성취했을 때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1	2	3	4	5	6	7
17. 누군가 나에게 최근의 성공에 대해 말해달라고 할 때, 내가 성취한 것을 줄여서 말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6	7
18. 나는 비록 그 사람들이 뛰어날지라도, 그들이 자신의 성취에 대해 과하게 말하는 것은 무례하다고 믿는다.	1	2	3	4	5	6	7
19. 사람들이 나에게 그들의 성공에 대해 말할 때, 나도 그들에게 내 성공에 대해 말할 것 좋아한다.	1	2	3	4	5	6	7
20.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긍정적 자질에 대해 말하는 데 어색함을 느낀다.	1	2	3	4	5	6	7

- ※ 17번 문항은 채점하지 않는다.
- ※ 대인관계적 겸손성향: 1, 2, 3, 5, 7, 11, 12, 13, 20
- ※ 사회적 바람직성: 6, 8, 10, 15, 18
- ※ 겸허한 태도(역채점): 4, 9, 14, 16, 19